

여성 불교

10대원 서원하면 누구나 승만 부인



〈승만경〉을 공부하는 여성 불자 80여 명은 구랍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계율을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정법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80여 여성 불자들이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를 받고 대승보살의 삶을 서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2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大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승만경〉을 공부한 여성 불자와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80여 명에게 수계가 내려졌다. 수계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을 계사로 모시고 진행됐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 수계를 받은 모든 분들은 승만 부인의 10대원을 세웠으므로 이제 승만 부인이 됐습니다. 선

정경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흔히 한국불교를 보살불교·치마불교라고 말한다. 그만큼 한국불교는 여성 불자의 신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반증일

기복불교 인식 벗어나는 길은 승만경 공부

택받은 불자라는 뜻입니다. 승만 부인의 10대원이 됩니까. ‘부처님 정법 지키며 정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계를 잘 지키면 복은 무량할 것이며 부처에 이르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보살불교가 한국 불교의 문제이자 병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불교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상징하는 뿌리이기도 하다.

절에 가면 법당에는 여성신도들도 가득하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오랜 옛날부터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온 가족을 대신해 복을 구하려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을 들었다.

그 여성들의 힘으로 가정은 지키고, 불교를 지켜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여성들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개설돼 활성화되고 있는 각종 불교요양대학이나, 사찰마다 복을 이루는 시민선방, 사찰수련회 등에 여성들의 참여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스님의 법문을 통한 이해에서 직접 교리를 배워 알고자 하는 쪽으로, 복을 구하는 불교에서 수행해 닦아가는 불교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능동적인 재가불자 여성의 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은 바로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2008년 〈승만경〉을 소의경전으로 공식 채택했다. 재가여성들의 수행을 비롯한 교리의 근본 경전을 찾은 것이다.

승만경연구회는 불교여성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승만 보살 10대원 수행정진’을 시작해 100일 단위로 회향법회를 봉행했으며 구랍 21일 수행 300일을 기념해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대장경은 믿음과 믿음

높은 여성 지위 드러낸 ‘승만경’

〈승만경〉은 중생이 모두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담은 대승불교의 초기경전이다. 경전은 사위국 파사의 왕의 딸로 야유타국 우정왕과 결혼한 승만(勝曼) 부인이 부처님의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이 승만 부인의 설법이 옳다고 인가하는 내용이다.

방대한 불교 경전 가운데 재가불자가 주인공인 경전으로는 유마거사가 주인공인 〈유마경〉과 〈승만경〉이 대표적이다.

〈승만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알리는 대승불교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손꼽힌다.

〈승만경〉은 기원전 3~4세기경 대승 사상가들에 의해 성립됐다. 몇 종의 한역본 중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은 구나발타라가 436년에 번역한 〈승만 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曼獅子吼一乘大方便廣經)〉이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진흥왕 때 〈승만경〉이 도입된 후 여왕들이 승만 부인의 원력을 닮고자 했다. 신덕여왕의 이름 ‘덕만(德曼)’, 진덕여왕의 이

름 ‘승만(勝曼)’, 진성여왕의 이름 ‘만(曼)’ 등은 한자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승만 부인의 원력으로 살아갈 것을 기원해 쓴 돌립자로 전해지기도 한다.

〈승만경〉은 전체 1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여래전 실공덕장은 승만 부인이 친정 부모인 사위국왕 파사와의 말리카부인으로부터 불법에의 귀의를 권유하는 편지를 받은 뒤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하리라는 약속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본론인 제2장부터 제14장까지 정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알리는 대승불교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손꼽힌다.

신라 진흥왕 때 전래... 왕실서 신봉

승만 부인 닮으려 이름에 ‘만’자 돌림

에게 인가받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승만경〉은 재가 여인의 입을 통해 진리가 설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승만 부인은 먼저 부처님 앞에서 열가지의 서원을 발하고 다시 세 가지의 크나큰 원을 발하면서 어김없이 지킬 것을 맹세한다.

〈승만경〉의 10가지 서원은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익혀야 할 계(戒)이며 규범으로 바람직한 여성이 되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길이다.

이나는 기자

“읽어보세요. 달라집니다”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연구회장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부처님한테 ‘해주시시오’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부처님한테 자신과의 약속을 맹세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자긍심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승만경〉에 관한 거예요.”

이인자 승만경연구회장(72·사진)은 〈승만경〉 전도사다. 만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승만 보살 10대 서원 수지독송을 권유한다.

이 회장은 매일 〈승만경〉을 수지독송한다. 시간이 날 때 10대 서원을 소리 내어

읽는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기억에도 남고 스스로의 다짐을 들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의식에서부터 화가 올라오지 않아야 해요. 우리 길으로 화를 참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매일 〈승만경〉을 수지독송 하고나서부터 200일째 되는 날 식(讖)에서 어떤 마음도 요동하지 않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인자 회장이 처음부터 불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독실한 불자인 이 회장의

어머니가 60년 동안 꾸준한 절에 올라 기도를 하는 모습만 그의 기억에 남아있었다. 이 회장에게는 단지 불교가 미신이고 기복이라고 여겨졌다.

경기대 교수 재임 시절 교수불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불교와의 인연이 이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부처님, 하나님, 나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을 항상 가르쳤다.

“나 자신이 하나님, 부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어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마

음을 먹고 다짐할 때 알아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항상 주체적으로 살기를 강조해온 이 회장은 어느 날 우연히 〈승만경〉을 보고 킬 뜻이 기뻐했다. 자신이 항상 가르쳐오던 것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승만경〉 예찬론자가 된 이인자 회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초대원장을 맡으면서 〈승만경〉을 불교여성개발원의 소의경전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2008년 승만을 닮고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승만경연구회를 발족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효성 교수 등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11년 4월 〈승만경〉 강좌의 교재인 〈승만부인사자후경〉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승만경〉의 본 내용이 최대한 충실하면서도,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로 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자 회장은 여자로 태어나 환영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수모의 삶이 싫었다. 하지만 〈승만경〉을 공부하고 난 뒤로는 남자 여자를 떠나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수처자주(隨處作主). 어느 곳 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主人)이 돼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생활 속 수행이 가능한 경전이라는 점이 〈승만경〉의 큰 매력”이라며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서원한 10대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2500년 전 여성 재가인이 부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서원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10대원은 불자라면 새겨야 할 덕목이구요.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입니다”라며 〈승만경〉 공부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글=이나는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놓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상공-신안해의의기술
 ■ 재질명: 순금세발만년등
 ■ 제작: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분량: 45cm
 ■ 분량중량: 30cm
 ■ 무게: 25kg